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시장 “조만간 좋은 소식”

문 대통령 신년사 언급 '광주형 일자리' 돌파구 열리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신년사에서 이례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완성자 공장 설립사업' (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언급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용어는 광주시장 역시 신년사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민선 7기 2년차 핵심시책 첫 번째로 꼽았으며, 이날 내 성사를 위해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협약 체결까지는 투자자인 현대자동차, 광주노사민정위원회의 한 축인 지역노동계 등과 추가 협의 및 합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광주시가 어떻게 이 난제를 풀어낼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년사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결코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니다”며 “기업,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화협력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를 상대로 직접 협상단장을 맡아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이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첫 번째 사업인 완성자 공장 투자 유치에 반드시 성공시켜 다른 지역과 다른 산업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진행 상황은 지난 6일 최종 협약서 조인식 무산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노동계는 광주시 및 현대차의 추가 협의를 통해 그동안 문제가 된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에 대한 삭제 또는 수정을, 그리고 현대차는 광주시와 지역노동계가 투자자의 입장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전격적인 수용을 바라고 있는 분위기다.

현대차·지역노동계 입장 교수

투자자 입장 최대한 고려

광주시 주도 재협상 서둘러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 의장은 “현대차와 추후 협상에 대해서 들은 바 없으며 지켜보고 있다”며 “현대차가 주장한대로 35만대 생산까지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을 유예한다는 것은 현 노동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노동계의 비판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의미다. 윤 의장은 “사회적 약속은 지켜질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광주시는 현대차와 추가 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대차에서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진두지휘했던 정진행 현대차 전략기획담당 사장이 지난해 말 현대건설 부회장으로 승진한 뒤 광주시 협상단이 현대차와 접촉했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시 관계자는 “현대차와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양측을 만나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광주시가 제2투자자인 현대차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 먼저 지역노동계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향후 합작법인의 운영과정에서 지역노동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해가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측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실정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 지역인사는 “광주형 일자리는 지자체가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투자자와 노동계를 이끌고 가야 가능한 구조”라며 “대기업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지도부, 의원, 당원들과 함께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이와 노동계 모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만큼 광주시가 서둘러 추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나쁜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법률을 어겨가면서 초법적인 내용을 강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시가 법인 자본금 7000억원 중 자기자본금(2800억원)의 21%(590억원)을 부담하고, 현대차가 19%(530억원)를 투자해 합작법인을 설립,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완성차 생산공장(62만8000㎡)을 짓는 사업을 말한다. 이 공장에서 연간 10만대 규모의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생산해 직접 고용 1000여 명 등 직간접 고용 1만2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노사민정 대화협을 통해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택·교육·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임금을 높여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적폐연대를 만들어 5당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 하고 있다”며 “바른미래당·정의당과 공조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기득권이 된 집권 여당, 기득권에 집착하는 야당을 뚫고 반드시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평등과 권리회복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또 “선거제도 개혁은 소수 야당이 의석 몇 개 늘리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린다”며 “이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평화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관철”

당지도부 5·18묘지 참배

“이달까지 선거 개혁안 마련”

민주평화당 지도부는 2일 광주를 찾아 “선거제도 개혁이 5·18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로 대 표되는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와 장병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9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들은 ‘민주의 문’ 앞에서 시무식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결의대회를 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적폐연대를 만들어 5당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 하고 있다”며 “바른미래당·정의당과 공조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기득권이 된 집권 여당, 기득권에 집착하는 야당을 뚫고 반드시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평등과 권리회복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또 “선거제도 개혁은 소수 야당이 의석 몇 개 늘리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린다”며 “이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식탁에 초대받지 못한 이 땅의 수많은 청년·자영업자·소상공인·농민·비정규직 등 절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식탁에 앉을 의자를 놓아주자는 개혁 운동이다”고 덧붙였다.

장병원 원내대표는 “올해 5·18 39주년을 맞는 데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의한 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작년에 마무리하지 못해 영령들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올해 초, 조기에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해 영령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는 정부가 이념과 원리주의에 입각한 그런 경제정책을 펼 게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펴서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실질적 삶이 나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 등은 이어 광주·전남·전북도당 합동 단배식, 지역위원장 간담회를 진행했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정 대표는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관련) 합의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후에는 두 가지 경로가 남아있다”며 “패스트 트랙으로 가든지, 아니면 대통령 직속 시민대표단을 만들어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 대통령 “경제 기조 바꾸는 일 시간 걸리고 불안하지만 꼭 가야할 길”

신년회 신년인사... 국무위원·靑 참모진과 현충원 참배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보지 못한 길에 어서 불안할 수도 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에 참석, 신년인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

아져 이젠 저성장일 일상이 됐고,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잘살게 됐지만, 함께 할 사는 길은 아직도 멀지만 하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다”며 “2019년은 정책 성과를 국민께서 삶 속에서 확실하게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다”며 “그 모든 중심에 ‘공정

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춧불은 더 많이 함께 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고,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며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하고,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지 지키고, 어려움을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양보·타협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함께 혁신해야 한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며, 방식도 혁신해야 한다”며 “혁신이 있어야 경제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본 투사업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가스전문점, 치킨오프,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임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스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빌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빛가람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